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4년 제94호
2024.02.22.(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EU】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후 中 기업 대상 최초 직권조사 착수

【미국】 美, 반도체법 발효 후 자국기업에 첫 대규모 보조금 지급

【한국·미국·일본】 韓·美·日, 무역에서 탈중국 가속화

주요 산업별 이슈

【철강】 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 발표

【전기차】 中 전기차 부품 기업, 멕시코 우회 對美 수출 확대

【반도체】 서방의 對中 제재에 따른 中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日 기업 반사이익

주간 이슈 포커스

【EU, 통상】 EU 공급망 실사지침 기업 적용 범위 일부 변동...이사회 최종 표결 연기

원자재 뉴스 PLUS

【광물】 칠레 구리 생산량 20년 만에 최저...구리 가격에 반영 가능성 ↑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 '강제노동' 규제 경고등

III. 공급망 소식통

KOTRA, 2024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소개

한국무역협회, 멕시코 관세감면프로그램(PROSEC·IMMEX)설명회 안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EU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후 中 기업 대상 최초 직권조사 착수

- 2.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가리아 열차 공공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한 中 기업 중차쓰팡(中車四方)*에 대해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역외보조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
 - * 中 국영 철도차량 제조사 중국중차그룹(CRRC)의 자회사
-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공공입찰 계약 금액이 2.5억 유로(약 3,600억 원)를 초과할 경우, 입찰 참여 기업이 최근 3년 이내 제3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약 58억 원) 이상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은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할 의무 발생
- 신고 의무 미준수 시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외국기업이 경쟁을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신고 내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집행위의 직권조사 개시 가능
- 상기 사례는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 후 이행 과정에서 심층 조사로 이어진 첫 사례로, 집행위는 오는 7.2일까지 해당 보조금에 대한 역내 시장 왜곡 여부를 조사할 방침
- 역외보조금 규정 조항에 의거, 집행위는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의 시장 왜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중차쓰팡의 계약 낙찰 금지 가능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02.16)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미국

美, 반도체법 발효 후 자국기업에 첫 대규모 보조금 지급

- 2.19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의거, 美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GF)*에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보조금 및 16억 달러(약 2조 1,350억 원)의 대출 지원 계획을 발표
 - * 글로벌파운드리스(GlobalFoundries):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위 美 반도체 기업 (1위 TSMC, 2위 삼성전자)
- 동 보조금은 뉴욕주 및 버몬트주에 소재한 시설의 총 3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며 10,500여 개의 건설·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125억 달러의 잠재적 민·관 투자 효과 기대
- 금번 보조금 지원 계획은 '22.8월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기업 대상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
- * 반도체법 지원 대상 기업: ① BAE시스템스(英, 3,500만 달러) / ②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美, 1억 6,200만 달러)
- 美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승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텔·TSMC·삼성전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기에도 귀추가 주목
- 美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법 덕분에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내 핵심기술 공급 노력이 가능하다”고 언급

출처: 美 상무부 보도자료(24.02.19), KBS(24.02.2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한국·미국·일본

韓·美·日, 무역에서 탈중국 가속화

- 📌 中 관세총국에 따르면, '18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中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p, 韓·日은 약 1.5~1.7%p 각각 하락
 - » 미국의 수입 상대국 1위는 17년 만에 중국이 밀려나고 멕시코가 차지하였으며, 주로 가전제품 등의 조달처가 중국에서 인도·베트남 등으로 이동
 - » 한국은 '23.12월 한 달 기준 20년 6개월 만에 對美 수출이 對中 수출을 역전*하였으며, 일본 역시 4년 만에 미국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함으로써 對中 수출을 역전
 - * '23.12월 한국 지역별 수출 동향: (對美) 112.9억 달러 / (對中) 108.7억 달러 [자료원: 산업부 보도자료('24.1.1)]
- 📌 다만 ASEAN·멕시코 등으로 中 기업 진출이 크게 확대되는 등 다수 자원국과 신흥국에게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큰 상황
 - » 중국은 브라질과의 양국 통화 거래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호주의 앨버니지 정권 출범 후 양국 관계 회복에 힘쓰는 등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존재감 과시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02.07), 일본 경제 브리핑 제24-06호('24.02.13)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철강

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 발표

- 📌 2.9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9.2월부터 26개 철강 품목에 적용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
 - * 관세율쿼터 조치(Tariff Rate Quota, TRQ): 쿼터 內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초과 물량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 » 이번 개시는 EU 14개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2.26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3.4일까지 역내 생산자 의견 수렴 후 6.30일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일 이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
 - » 집행위는 지난 '18.7월 美 무역 제한 조치 도입 시 철강의 역내 수입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EU 철강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
- 📌 WTO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는 최대 8년 동안 시행될 수 있으며, EU 철강 보호 조치의 경우 최대 '26.6.30일까지 연장 가능
 - » 집행위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능을 세 차례 검토했으며, 최근 '23.6월 조사 결과, 보호 조치를 조기 종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02.09)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전기차

中 전기차 부품 기업, 멕시코 우회 對美 수출 확대

- 📍 2.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對美 우회 수출 등을 겨냥한 中 자동차 부품업체의 멕시코 투자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
 - » '23년 멕시코에서 생산된 中 자동차 부품의 對美 수출*은 11억 달러(약 1조 4,660억 원)를 기록했으며, 작년 멕시코에 등록된 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총 33개, 이 중 18개 기업이 미국 수출 실적 보유
 - * ('21년) 7.1억 달러 → ('22년) 9.4억 달러 → ('23년) 11억 달러 [자료원: 멕시코 자동차부품 협회(INA) 집계]
 - » 테슬라의 멕시코 기가 팩토리 설립에 따라, 中 상하이에 소재한 테슬라 부품 공급망이 美 텍사스주에 인접한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으로 대거 이전 중
- 📍 블룸버그는 미국의 對中 301조 관세 등 규제 회피 및 IRA 보조금 수혜 등을 목적으로 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
 - »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의 정부 지원을 받는 中 공급업체가 북미 기업 중심 투자를 대체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우려로 '26년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차기 검토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

출처: 블룸버그('24.02.14),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13호('24.02.16)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반도체

서방의 對中 제재에 따른 中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日 기업 반사이익

- 📍 2.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中 반도체 기업의 日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
 - » MSCI 日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지수는 '22.10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 이후 관련 日 기업이 1,470억 달러(약 196조 원)의 가치를 얻는 등 2배 이상 상승
 - » 반도체 공정 중 실리콘 세척·절단 등에 사용되는 日 반도체 장비 수입이 특히 증가했으며, 對中 수출이 도쿄 일렉트론 등 금년 日 주요 기업 매출의 4~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 일각에서는 중국이 단기적으로 日 반도체 장비를 수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첨단 반도체를 자체 양산하기 어려워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분석 제기
 - »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지만, 日 반도체 업체가 부품, 장비 관련 반도체 기술을 수출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자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

출처: 블룸버그('24.02.14), 한국경제('24.02.1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EU, 통상

EU 공급망 실사지침 기업 적용 범위 일부 변동...이사회 최종 표결 연기

🕒 지난 '23.12.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는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고, **실사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일부 수정**

*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인권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 기존에 제외되었던 **고위험산업* 매출비중**을 기준에 추가하였으며,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을 적용 대상기업에 신규 추가

* 섬유(의류, 신발 포함)산업, 농임수산업, 식품·음료 제조업, 광물 추출 및 관련 제품의 제조·건설업 등 환경·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잠정 합의안

개 요	▶ (실사 범위)*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폐기 * 제품·서비스 사용 단계의 최종 다운스트림 제외(소비자에 의한 제품 폐기 등)		
	▶ (적용 분야) 인권 및 환경		
실사 절차	▶ ① 기업정책 실사 통합 → ②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 ③ 조치 시행 → ④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 → ⑤ 모니터링·점검 → ⑥ 실사 내용 공시(연간)		
실사 적용 범위	기존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기업		
	역내	▶ 직원 수 25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 ▶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	
	역외	▶ EU 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초과	
	↓		
	수정된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기업		
	역내	구분	적용 대상 기업
		대기업(일반)	▶ 직원 수 50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	▶ 상기 기준에 미치지 않으나,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750만 유로를 초과하고, 전 세계 순매출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고위험 산업		▶ 직원 수 25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 중, 고위험 산업 매출이 2,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역외		대기업(일반)	▶ EU 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	▶ 상기 기준에 미치지 않으나,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750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고위험 산업	▶ EU 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 중, 고위험 산업 매출이 2,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 2.9일(현지시간)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 최종 표결은 독일의 기권 의사 표명에 따라 2.14일로 연기되었으나, 추가 연기되어 **표결 일정 재추진**

▶ 일각에서는 EU 인구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이탈리아가 기권 입장을 표명하면서, 최종 승인 표결 방식인 가중다수결제*를 통한 **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

* 가중다수결제 가결 조건: EU 회원국 수의 55% 이상,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찬성

▶ 다만, 올해 6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로 인해 **4월 유럽의회에서 승인 표결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과거 환경규제에 대해 극적인 최종 승인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출처: EU 경제통상 리포트 제24-01호('24.01.24), 연합뉴스('24.02.15)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광물

칠레 구리 생산량 20년 만에 최저...구리 가격에 반영 가능성 ↑

🔍 '23년 칠레 구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525만 톤으로, 이는 칠레구리위원회가 공식 통계를 작성한 '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출처: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종합(24.2.14)]

-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속적 폭우로 인한 조업일 감소, ▲구리 추출 핵심 재료인 황산의 생산량 감소, ▲광산 시설 인프라 노후 등이 꼽힘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3주)

◆ [비철금속] 美 금리인하 지연 우려에 따른 동 가격 ↓, 주요 광산 가동중단으로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월	전년비(%)	2.2주	2.3주	전주비(%)
동	8,478	8,344	△1.6	8,237	8,176	△0.7
니켈	21,474	16,091	△25.1	15,717	16,030	2.0
아연	2,647	2,521	△4.8	2,387	2,308	△3.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美 경기지표 강세에 따른 금리인하 지연 우려로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칠레 광산 생산 실적 부진으로 상기 하방압력 부분적 상쇄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2월 3주차 동 재고량은 133,755톤으로 전주대비 3.0% 감소, 3주 연속 감소세

🔍 (니켈) 호주·뉴칼레도니아 등 주요국 광산의 가동중단 결정으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中 전기차 시장성장을 둔화 전망은 상기 상승압력 부분적 상쇄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2월 3주차 니켈 재고량은 71,790톤으로 전주대비 0.2% 감소, 13주 연속 증가세 마감

◆ [철강] 中 춘절 연휴 기간 수요정체로 철광석 가격 보합세, 中 수요둔화에 따른 유연탄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월	전년비(%)	2.2주	2.3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24.14	△28.4	123.95	123.48	△0.4
원료탄	295.71	332.91	12.6	315.50	315.12	△0.1
철광석	119.32	135.40	13.5	126.93	126.93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中 춘절 연휴 기간 주요 거래소 휴장에 따른 수요 정체와 달러가치 상승으로 가격 보합세 시현

🔍 (유연탄)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료탄 가격은 계절성 소비둔화 및 中 춘절 연휴 수요 정체로 하락세 시현

▶ 연료탄 일일가격은 톤당 124달러에서 122.75달러로 소폭 하락세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3주)

◆ [희소금속] 제한적 거래에 따른 가격 유지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3년	'24.1월	전년비(%)	2.2주	2.3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31	△10.6	1,130	-	-
탄산리튬	35,697	13,331	△62.7	13,284	-	-
수산화리튬	35944	11,305	△68.6	11,198	-	-
코발트	17.82	16.63	△6.7	16.75	17.00	0.3
산화 디스프로슘 (히토류)	330,258	297,500	△9.9	271,900	-	-
산화 네오디뮴 (히토류)	78,383	58,309	△25.6	57,300	-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코발트) 제한적 거래에 따른 가격 유지

▶ 유럽시장은 제한적 현물거래에 따른 전주 가격 유지 중이나, 유럽 서부 생산자들은 타이트한 현물 가용성을 겪으며 향후 금속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이 존재

※ 中 춘절 연휴로 인해 기타 광종 가격 미고시

◆ [에너지] OPEC+ 감산 준수 의지 표명,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3년	'24년	전년비	2.2주	2.3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79.43	△2.67	78.85	81.64	2.79
브렌트유	82.17	79.88	△2.29	79.92	82.31	2.39
WTI	77.60	74.62	△2.98	74.60	77.36	2.76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국제 유가) ▲OPEC+ 감산 준수 의지 표명,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 지속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세, 美 원유 재고 증가 및 주요국 경제 침체 등은 유가 상승폭을 제한

- ▶ 사우디 에너지부는 2.12일(현지시간) 사우디의 생산능력 확대 보류 결정은 에너지 전환에 기인한다고 밝히며, 자국은 석유시장에 충분한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 ▶ 2.9일(현지시간) 기준 美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美 상업 원유 재고는 전주대비 1,201.8만 배럴 증가
- ▶ 미국·이집트·이스라엘·카타르가 참여한 가자지구 휴전 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되었으며, 2.15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석유 저장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는 등 지정학 리스크 지속



공급망 더 알아보기

글로벌 공급망 '강제노동' 규제 경고등



[작성]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참고] KITA 통상리포트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24.02.08)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22.6월 시행) 및 EU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제노동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관련하여 기업이 점검해야 할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짚어보자.

美·EU 강제노동 규제 동향

- ▶ (미국) UFLPA 시행 후 누적 22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됨
 - * 미국은 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
 - 통관 보류 대상 수입품 중 최종 선적지가 중국인 비중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제재 품목 확대) 당초 UFLPA 적용 우선 품목으로 면화·토마토·폴리실리콘이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 (EU)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 입법을 '24년 초 완료할 것으로 전망
 - (제재 범위)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칙 초안은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되어 있다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할 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
 - (입증책임)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UFLPA와 같이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수정안을 제시

〈표. 미국·EU 강제노동 규제 주요내용 비교〉

구분	미국	EU
제재 범위	수입	수입·수출 및 EU 시장 내 유통·판매
대상 품목 범위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나, 집행 편의 고려해 우선순위 품목 지정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나 EU집행위가 고위험 품목 지정(섬유, 광업, 농산물)
특정 기업 제재 여부	UFLPA Entity List 제재	특정 기업 관련 제재 없으나, 대기업이 집행 우선순위
관할기관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 집행전략 수립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이행	각 회원국이 지정
입증책임	수입자	(초안)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
		(의회안) 고위험 지역·품목 수입품에 한해 수입자에 입증책임 부과
처벌	강제노동 무관함이 입증될 때까지 통관보류(3개월 내), 이후 압수 및 파기	관할 당국이 결정 (상품 판매 및 수출 금지/ 주문 철회/ 폐기)

📌 강제노동 무역 제재 관련 기업의 리스크 점검

- ▶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 사용)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되는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주의 필요
- (태양광) 전 세계 생산량 대비 신장위구르 지역의 폴리실리콘 생산비중은 35%이며('22년 기준), 폴리실리콘의 원료인 메탈실리콘의 생산비중은 32%로('20년 기준) 강제노동 노출 가능성이 높음
- (전기차) 英 셰필드 할람대학 내 헬렌 케네디 센터의 연구 결과(2022)에 따르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위구르 강제노동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 (배터리) 신장위구르 지역에는 중국 총 리튬 매장량의 45.5%가 매장되어 있으며, 중국 주요 리튬 기업의 정·제련 생산시설도 확대되고 있음
- ▶ (중국산 원료·소재·부품의 제3국 우회 증가) 중국산 원재료나 소재·부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조립하는 경우가 늘어나 공급망 복잡도가 높아지고 협력업체의 노동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추적, 감독의 어려움이 가중됨
- ▶ (중국 내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 데이터안전법 등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중국 또는 신장위구르 협력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은 공급망 실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중국 외 아태지역 내 강제노동)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은 美 UFLPA와 달리 전 지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동남아산 제품에 대한 제재가 증가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우리 기업 대응방안

- ▶ 공급업체의 직·간접적인 강제노동 사용 근절에 대한 고객사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 가격 프리미엄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대표적인 사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영향으로 미국 내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UFLPA에 근거해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태양광 셀, 모듈의 수입이 제한되자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비(非) 중국산 폴리실리콘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됨
- * 전 세계에서 비중국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는 한국의 OCI, 독일의 바커(Wacker), 미국의 험록(Hemlock) 단 3곳에 불과
- * '23년 10월 기준 비(非)중국산 폴리실리콘의 평균 가격은 22.7달러/kg로 중국산 대비 147% 높음
- ▶ 對미국·EU 수출기업은 협력사와 공조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Mapping)하고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
- 기업은 강제노동 방지 및 실사 정책을 수립하여 공급업체와 관련 행동강령을 체결해야 함
-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 등 산업별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 ▶ 만일 강제노동 위험이 발견되어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원가 상승,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공급망 소식통

2024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소개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자체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해 **2024년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 개요

- ▶ 사업명 : 2024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 ▶ 기간 : 협약체결일 ~ '24.12월
- ▶ 목적 : 자체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이 어려웠던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
- ▶ 추진방식 : ① 참가기업 선정 → ② 대체공급선 발굴 및 검증 → ③ 샘플원료 구매 → ④ 원료 시험인증 → ⑤ 시제품 생산(시운전) → ⑥ 시제품 시험인증

세부 추진내용

구분	내용	업무 수행자
사업공고 및 기업모집	○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기업 선정	○ 기업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대체수입처 발굴· 현장검증	○ 기업 수요, 무역통계/DB 활용, 대체 수입처 발굴 국가 선정 ○ 샘플 수입 대상 수입처 발굴 및 현장검증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해외무역관
↓		
샘플원료 구매	○ 운영 기관 및 참가기업이 협의 하에 최종 구매 원료 결정 * 각 공급사 영업 정책에 따라 한국 법인·지사나 에이전트 통해 구입 가능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해외무역관, 참가기업
↓		
원료 시험인증	○ 시험인증기관 통한 원료 스펙 검증, 시운전 투입 가능 여부 결정	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
↓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 시운전 추진 및 시제품 생산 ○ 시제품의 기존 제품 대체 가능성 검증 (시험인증기관 인증)	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
↓		
결과 보고·정산	○ 결과 확인 및 후속 지원 ○ 소요 비용 검토 및 환급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신청 및 관련 문의

- ▶ 신청 :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의 [\[2024년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링크)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신청
- ▶ 관련 문의 : ☎ 02-3460-3322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공급망 소식통

멕시코 관세감면프로그램(PROSEC·IMMEX)설명회 안내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멕시코대사관과 공동으로 **멕시코의 관세감면프로그램(PROSEC·IMMEX)**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 » 일시 : '24.2.28.(수) 10:00~11:30
- » 장소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1호
- » 대상 : 對멕시코 수출 투자 기업
-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주한멕시코대사관
- » 언어 : 한-영 동시통역 제공
- » 내용 : 멕시코 PROSEC·IMMEX 제도 및 활용 방안 소개

프로그램 소개

»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

: 자격 요건 충족 시 특정 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멕시코에 수입된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서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제조업수출진흥프로그램(IMMEX)

: 수출용 상품 생산을 목적으로 멕시코에 수입되는 원자재,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

프로그램 안내

시간	세부 일정	발 표
10:00-10:05	개회식	-
10:05-10:15	멕시코 시장 진출 방안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10:15-10:25	멕시코 관세감면제도(PROSEC·IMMEX) 소개 및 기업별 활용방안	멕시코 경제부
10:25-10:40		North America Investment
10:40-11:30	Q&A	-

*상기 프로그램 변동 가능

관련 문의

- » 관련 문의 : ☎ 02-6000-5357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글로벌 경제지표 (24.2.20.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2말	'23말	'24.1말	2/16	2/19	2/20	전일비	23말비
₩/US\$	1,264.50	1,288.00	1,334.60	1,335.40	1,335.20	1,337.60	0.18%	3.85%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32.60	1,332.80	1,332.90	1,335.60	0.20%	3.79%
₩/CNY	181.44	181.37	185.88	184.49	185.49	185.07	△0.23%	2.04%
₩/¥100	945.56	912.25	902.85	888.90	890.19	889.54	△0.07%	△2.49%
Y/US\$	133.73	141.19	147.82	150.23	149.99	150.37	0.25%	6.50%
US\$/EUR	1.0617	1.1105	1.0816	1.0758	1.0781	1.0770	△0.10%	△3.02%
CNY/US\$	6.9630	7.1092	7.1817	7.1929	7.1968	7.1983	0.02%	1.25%

* 23년 평균 환율: (₩/US\$) 1305.9원, (₩/¥100) 931.6원, '24년 평균 환율('24.1.1~현재): (₩/US\$) 1327.6 (₩/¥100) 902.6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3년 최저(해당일)	'23.12.29	'24.2.19(전일)	'24.2.20	전일비	'23년최저비	'23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2.26	82.76	0.5	12.5	5.7
					0.6%	17.7%	7.4%
철광석	97.35(5.24일)	140.50	128.8	121.95	△6.9	24.6	△18.6
					△5.3%	25.3%	△13.2%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364.5	8,366.5	2	554.0	△109.5
					△0.024%	7.1%	△1.3%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185.00
					△1.7%	3.8%	△8.0%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6,175.00	16,135.00	△40.0	250.0	△165.0
△0.2%					1.6%	△1.0%	

반도체

	'21	'22	'23.11월	'23.12월	'24.1월	2/15	2/16	2/19	2월(~1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66	1.74	1.86	1.94	1.94	1.95	1.94
(%, YoY)	29.9%	△23.0%	△23.1%	△14.8%	△3.6%	6.6%	6.9%	7.5%	6.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2	6.38	6.38	6.42	6.42	6.42	6.42
(%, YoY)	14.7%	10.7%	△1.7%	△2.3%	△1.9%	△0.6%	△0.6%	△0.6%	△0.7%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22.12.30	'23.12.29	1.26	2.2	2.9	전주비(1.19)	'23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179.09	2217.73	2166.31	△2.3%	23.1%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22.12.23	'23.12.22	'24.1.1	2.13	2.14	2.15	2.16	전일비(1.29)	'23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585	1582	1581	1610	1.8%	△23.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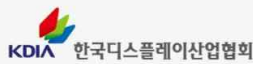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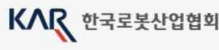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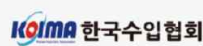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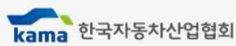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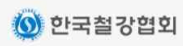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